

# 국감의 계절 온다...광주 복합쇼핑몰·전남 쌀값 하락 이슈

## ■ 국정감사 일정

10월 14일	한국전력공사 등 나주혁신도시 내 16개 기관
17일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전남대, 전남대병원,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광주고검, 광주지검
21일	전남도, 전남경찰청, 해양경찰청, 여수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2일	광주시, 광주경찰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6개 기관
23일	광주지방국세청

## 광주·전남 10월 14일부터 진행

광주·전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10월 14일부터 진행된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군 공항 이전 등이, 전남도는 쌀값 하락 등이 주요 국감 이슈로 예상되고 있다. 또 광주·전남경찰청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비리가,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 교고동창 감사관 채용비위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들은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에 돌입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달 14일 나주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나주혁신도시 내 16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위원회는 같은 달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의 국감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전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병원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광주시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감 교고동창 감사관 채용비위' 등을 놓고 강력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관 채용비위는 애초 2023년 8월 교육부감사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 A간부가 감사관을 채용하는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평가위원 2명이 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씨의 점수를 높게 수정하면서 기존 3위였던 B씨는 2위로 올랐고 감사관으로 채용됐다. 교육시민단체가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자 해당 감사관이 중도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었고, 교육단체 등의 고발로 광주경찰청 내부패밀리범죄수사대가 현재까지 1년 여 동안 수사를 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같은 날 대전고법·고검에서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과 광주고검·광주지검 국감을 연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에 대한 국감을 하고 오후에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한다. 광주시 국감은 다음날인 2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리고 이후 광주경찰청 국감도 이어진다.

## 쇼핑몰 인근 교통 대책 군 공항 이전도 주요 이슈 사건 브로커 인사 비리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쟁점

국감은 통상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지난해 전남도의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로 국감이 순연되면서 올해는 광주·전남도가 동시에 국감 대상이 됐다.

광주시 국감에서는 지지부진한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공사비가 급증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교통난 등이 우려되는 복합쇼핑몰 건립 문제 등이, 전남도 국감에선 쌀 값, 소 값 하락 등에 따른 농가 대책 마련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경찰청 국감에선 사건브로커 관련 인사비리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말 광주지검의 수사로 사건브로커가 광주·전남 경찰 고위직과 친분을 이용해 지난 2021~2022년 경찰 승진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당시 광주경찰청장은 사건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전남경찰청장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후 숨진 채 발견됐다.

공소사유 마무리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직 국회의원의 무더기 송치에 대한 지적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찰의 능동 수사에 대한 질타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여수에서 해양경찰청·여수항만공사·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에 대한 국감을 하고 22일 국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감을 한다.

국감 일정 대부분은 여야 합의를 마친 잠정안으로, 각 상임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최종 일정과 피감기관 수가 확정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비상 진료에 사용 특례 신설”

###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뱅뱅이’ 사례들을 보면 수치 절감,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

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에 비롯한 비상 진료체계를 균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석 연휴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격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려야

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수출 성장과 물가 안정에 지표를 전하고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 대통령·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회동

###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최고위원·당직자 등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식 만찬을 한 것은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에 이어 두 번

째다. 당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당에서는 ‘투합’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

대표,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및 주요 수석이 함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민국 대표관광지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한국, 일본, 대만.. 마침내 홍콩까지!  
**아시아 신행로를 열다**

코스타 세레나호 · 1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 수용인원: 3,780명 · 승무원: 1,100명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13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대한민국 크루즈 승객 1위

광주지사 **1688-1104**

한국 / 일본 / 홍콩 / 대만  
**아시아 4개국 크루즈 11일**

2025년 **1월 6일** 인천항 출항

조기에약 **40만원 할인** + 선착순 선실 우선 배정  
예약 후 24시간 이내 1인 예약금 100만원 입금 및 9월 30일까지 완납 조건

내 측 2,890,000원~ 오션뷰 3,290,000원~  
발코니 3,690,000원~ 스위트 4,490,000원~

인천항 - 오키나와 - 이시카기 - 홍콩(1박 2일) - 가릉 - 부산항

1 홍콩의 낮과 밤을 모두 즐기는 홍콩 OverNight  
2 겨울에 만나는 따뜻한 겨울(평균온도 22℃)  
3 크루즈 특별 공연 ·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셀럽 특별 콘서트  
롯데관광 크루즈 스태프, 가수왕 선발대회  
4 13년 노하우! 한국맞춤형 특별진세션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롯데관광 특별 초청 게스트!  
일루션리스트 이은결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코스타 세레나에서 펼쳐집니다.

**GRAND HYATT** 제주 예약·문의: 1533-1234

기적포함내역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된 당일여행 및 개별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기타경비**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이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안전경비내역] ①여행유류 ②여행자세 ③일승고지 ④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니지] 서비스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음  
●종로구청 · 일반여행업 제467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인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출발지 · 인천(김해/대구/부산/청주공항) ●여행보험처리센터 · 1588-8692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버스,해리,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열차표,입장권,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